

#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세계

## 1. 우리에게 사라진 하늘제사와 신년 축제문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늘을 직접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는 문화의 방정식이 상실되어 버렸다. 고구려인이 매년 10월이면 국중에 모여서 대회를 열었던 동맹 제천의 역사, 부여인이 매년 12월에 벌였던 영고 제천의 축전, 이러한 하늘 제사와 하늘 축제 문화가 고려시대를 통하여서는 11월 보름 팔관대제, 정월 원구 제천으로 더욱 다원화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온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제전의 성격이었기에 당시 사회의 통합과 인간 사유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장치이기도 하였다.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존재는 아니나 이처럼 한국 고대인이 남겨놓은 하늘의 역사는 하늘과 인간의 두 세계를 무던히도 하나의 관계망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동아시아 세계관의 주요 특징이기도 한 천인상관의 방정식은 전통시대를 지탱하였던 커다란 사유의 축이었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친환경적이고 조화로운 자연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생태자연학의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하늘과 가까이 살아왔던 우리 역사 속의 별자리 이야기와 그 천문의 상상력을 살펴 보아, 한국사에 흘러 있는 하늘에 대한 사유의 흐름을 짚어내고, 동양과 서양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문제 등을 비교하면서, 우리 문명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코스몰로지 특성을 탐색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인문학이 내놓아야 할 중요한 테제일 것이다.

- ▷ 우리에게 사라진 하늘제사와 신년 축제문화
  - ✓ 부여의 은정월(12월) 영고 제천
  - ✓ 고구려 10월(상달) 동맹 제천
  - ✓ 고려 11월(중동) 보름 팔관대회
    - 서경 10월 보름 팔관대회
  - ✓ 고려 정월 원구 제천
  - ✓ 조선 정월 원구단 제천
- ▷ 하늘 - 사회 통합과 인간 사유의 구심력 → 국가제전
  - ✓ 사회 통합의 문화장치
  - ✓ 하늘의 경험과 사유의 지평
  - ✓ 하늘과 인간을 넘나들던 천인상관의 천자연주의 원천
- 21세기 하늘의 복원과 문화의 복원

## 2. 하늘 - 사회 통합과 인간사유의 구심력

하늘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넓고도 푸른 하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배후이자 우리 사유의 상상력을 한없이 자극하는 무한한 존재로서 긴 우리 역사 속에서 가까이 숨쉬어 왔던 우리 삶의 구성분자이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이 하늘을 모든 사유의 근거와 원천으로 중시하였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의 상관틀로 묶어내는 삼재합일 세계관을 발달시켰다.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닌 천지인의 세 요소가 생래적으로 상관된다고 보았기에 삼재(三才)라 하였으며, 이 때 재(才)는 근본이란 뜻이어서 다른 말로 천지인은 존재의 삼원(三元)이 되는 것이다.

공자가 『논어』에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빌 곳이 없다고 한 것은 하늘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궁극임을 언명한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을 하늘이 일일이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은 우리 동아시아 세계관의 주요 기저인 바, 유교와 도교 및 불교를 막론하고 하늘에 관한 논변인 천론(天論) 내지 천학(天學)을 발달시켰고, 하늘의 지극한 명령을 천명(天命)이라 하였으며,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이 천명에 근거한 것이라는 생각이 『중용』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란 명제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하늘은 말이 없는 원원한 궁극자이므로 자신의 뜻을 간접적인 방식인 천변(天變)과 지이(地異)를 통해 드러낸다는 생각을 발달시켰는데, 이것이 공자의 춘추재이론(春秋災異論)이다. 천변은 일식과 월식 또는 무지개 등의 천문현상을 이르고, 지이는 홍수나 화재와 같은 지변현상을 이른다. 인간의 종주로 자리하는 군주야말로 이들 천변과 지변현상을 잘 관찰하기를 요구받았는데, 제왕의 잘잘못을 최종적으로는 하늘이 징벌하고 포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월식의 천변현상은 매우 큰 하늘의 징벌적 표상이어서 이를 제대로 관찰하여 하늘의 뜻을 올바르게 실현하기를 요청받았다. 동아시아 역사가 천문학을 발달시킨 근거가 바로 이러한 천인상관의 춘추재이론 관점에서 입론되어 있는 것이다.

서양의 세계관이 궁극적 존재자로 하늘 대신에 위대하고도 유일한 신(神)을 설정하고서 그 신의 의지와 표상을 읽으려 수천년간 노력하였던 결과 모든 학문의 바탕에 신학(神學)이 자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 비인격이지만 인간의 품성을 가진 하늘을 내세워 지난 수천년간 사유하고 섬겨왔던 까닭에 동양의 모든 학문의 바탕에는 천학(天學)이 널리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읽는 독법의 주된 키워드가 하늘에 주어지는 것이며, 서양 문화가 신의 문화사라면 동양 문화는 하늘의 문화사라 하게 되는 것이다.

- ▶ 공자의 『논어』 획죄어천 무소도야 → 천론(天論)과 천학(天學)의 지향성
- ▶ 천지인 삼재의 합일 세계관: 삼재(三才)=삼원(三元)
- ▶ 천명(天命) →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중용』
- ▶ 하늘 → 천변과 지이 → 인간 : 춘추제이론과 천인상관 세계관의 방정식
- ➔ 제왕학으로서 천문학의 발달 근거
  
- 서양 세계관: 위대하고 유일한 신(神) → 신학(神學)의 발달 → 신의 문화사
- 동양 세계관: 위대하고 원원한 하늘(天) → 천학(天學)의 발달 → 하늘의 문화사

### 3. 동서양의 일월 관점과 보름달의 신화 차이

한가위라 불리는 추석 명절은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별이는 우리 민족의 대향연이다. 1년 중에 가을은 우리의 국토 산하가 가장 맑아지는 계절이며, 그 가을의 입구에서 만나는 추석날 둥근 보름달에는 우리 민족이 가꾸어온 아름다운 월세계의 신화가 담겨있다.

흔히 하늘에 빛나는 것이 무엇 있을까 할 때, 해와 달과 별의 셋이 있으니 이를 일러 삼광(三光)이라 일컬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그림 중에는 고구려와 고려의 고분벽화에서 술하게 보이듯이 해와 달과 별자리의 세계를 천장 가득히 담은 삼광의 벽화 그림이 매우 발달하였다. 동쪽 하늘 천장에는 둥근 태양을 그렸고 서쪽 천장에는 둥근 달을 그렸다. 해와 달이 우리 역사 속의 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서로서 너무나 당연할 듯한 이 해와 달의 이야기가 서양의 정서나 신화에 대비시켜 볼 때 사뭇 의외의 장면을 만나게 된다.

고대 이집트의 하늘에는 파피루스 그림에서 흔히 보이듯이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파라오의 왕권을 관장한다는 태양신 라(Ra)가 홀로 빛나는 태양 신화가 널리 발달하였고, 이집트를 병합한 고대 로마 제국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의 문화로 자리잡아 갔다. 이에 비해 달에 대한 생각은 점점 약화되어 중세 유럽 사회에 이르면 달이 뜬 밤에 마녀사냥을 벌이었던 보름달을 상당히 음험하고 불길한 상징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서양적 문화에 바탕한 현대 영화나 소설, 만화 등에서 공포와 괴기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일 때면 대개 늑대가 울고 둥근 달이 뜨는 밤을 배경으로 삼는다. 달(lunar)에서 파생된 루너틱(lunatic)이란 말이 “광기 또는 미친”이란 뜻을 갖게 된 것도 그런 문화 배경에서 생성되었다. 영어 닉네임에 달(moon)이란 단어를 넣으면 서양 사람들 정서로는 매우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보름달은 음험한 상징이 아니라 원만함의 상징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만 같아라”는 덕담이 있듯이 둥근 달은 우리에게 완전함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문화 속의 달 그림이 초생달이 아니라 둥근 형태인 것도 이런 때문이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서양의 달력이 태양만을 강조하는 태양력 형식인 반면에, 우리의 달력이 해와 달을 둘다 중시하는 태음태양력 전통인 것도 달에 대한 신화와 정서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우리에게 달은 해와 더불어 짝이 되는 대등한 존재이다. 고대 신라의 신화 중에서 해와 달이 된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나, 둥근 달이 뜬 밤에 탐돌이를 하고 달맞이를 하는 풍속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런 정서의 반영이다. 가을밤이 익어가는 계절에 한가위 보름달을 기리는 추석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된 것에는 이렇듯 보름달에 대한 남다른 신화가 깔려있기에 가능한 문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의 세시민속 중에는 보름달과 관련된 절일이 많이 되었다.

1년에 열두번의 둥근 보름달이 떠오른다. 윤달이 든 해에는 또 한번의 둥근 달을 만난다. 이 열두 번 내지 열세 번의 보름달 중에서 유난히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아온 둥근 달은 설날 직후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달과 가을이 한창 익어가는 음력 8월의 한가위 보름달이다. 정월에 뜨는 대보름달은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원의 의미를 담았고, 가을의 한가위 보름달은 여름 내내 자란 곡식이 완숙하는 것을 기리는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공활한 천공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해마다 떠오르고 올해에도 다시 떠오른다. 해마다 달마다 어김이 없으니 장구한 영속성을 상징한다. 추석날 먹는 둥근 송편에는 이처럼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유가 깊이 묻어있다.

## 4. 하늘과 별자리를 담은 천문도

### 4-1. 한국 천문도의 역사

- \* 고구려에서 조선까지 흐르는 하늘의 역사
- ▽ 한반도 고인들의 별자리 유적
- ▽ 바위그림에 새긴 별자리그림 유적
- ▽ 천문의 유희와 놀이 : 옷놀이판의 천문과 천손 민족
- ▽ 고구려 별자리벽화고분(4~7세기) : 25기
- ▽ 일본 기토라고분 천문도 : 700년경 / 사규(四規) 전천(全天) 천문도
- ▽ 고려 능묘벽화의 천문도 (17기)
- ▽ 고려 치성광불천문도 : 「熾盛光如來往臨圖」(14C) / 선조 2년(1569)작 「熾盛光佛諸星降臨圖」
- ▽ 조선 天象列次分野之圖(태조 4년, 1395)

### 4-2. 고구려 별자리와 천문 관련 참고도판

- \*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 12)
- p.203 5-2. 동양 천문도의 역사
- p.205 6-1. 사신도와 28수 성좌도
- p.206 6-2. 오신도와 천상열차분야지도
- p.143 고구려의 오신도와 천상열차분야지도
- p.207 6-3. 28수-12궁 별자리 대조 천문도
- p.208-210 동서양 대조 천문도

- \*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 10)  
p.99 그림8 부찰 지상방위도와 그림9 양관 천문방위도  
p.101 그림 10. 부찰 천문방위도
- \*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고즈윈, 2008. 8)  
p.291 그림 29. 고려 치성광여래왕림도의 모사도  
p.450 그림1. 해남 녹우당 소장 방성도

## 5. 고구려 벽화의 천문학과 별자리 문화사

### 5-1. 고분의 나라, 고구려 고분유적

- ▶ 고구려 두번째 수도 국내성에는 1600년을 견뎌낸 수많은 고분들로 꽂들어차 있다.
- ▶ 만주와 북한의 고구려 무덤 13,000기 : 만주지역 1966년 당시 당시 11300기(봉토석실분 4321기, 적석묘 2886기 등)였던 것이 최근 1997년에는 3928기가 소실되어 6854기 가량 현존
- ▶ 환도산성 산성하 무덤떼, 국내성 우산하 무덤떼, 칠성산 무덤떼 등
- ▶ 고구려의 전통적 묘제는 돌로 쌓아 만든 적석묘→봉토적석묘→봉토석실묘(벽화묘)
- ▶ 수많은 고분유적들은 문헌기록이 적은 고구려 역사가 되살아난 주요 기반

### 5-2. 벽화의 왕국, 고구려

- ▶ 칼라의 시대, 지금까지 120기의 벽화고분 발견
- .압록강 중심의 환인.집안지역 38기
- .대동강 중심의 평양.안악지역 82기
- (\*위진수당대 중국지역 벽화고분은 86기 가량)

압록강 일대	집안		환인	무순	소계 38기	총계 120기
	36기		1기	1기		
대동강 일대	평양시	남포시	평남	안악	소계 82기	
	30기	24기	14기	14기		

표 3 고구려 벽화고분 분포 (2011년 현재)

▶ 현재 고구려의 수많은 무덤 가운데 벽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덤은 대략 100여기 이상이며, 4세기에서 7세기 사이 약 30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축조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위진수당의 700년 동안(3~10세기) 그 넓은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이 80여기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량이다.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크게 두 지역에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고구려 전반기의 수도 국내성이 자리하였던 압록강 중류 집안시 지역에 현재까지 38기가 발견되었다. 집안은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인 국내성이 위치한 곳으로, 2대 유리왕 22년(서기 3년) 겨울 10월에 고구려의 건국지였던 홀본(졸본)의 오녀산성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424년간 국가를 경영하던 곳이다. 오녀

산성이 있는 지금의 환인지역과 신성이 있던 요녕성 무순에서 벽화고분이 2기 발견되었으므로, 만주의 집안과 환인 일대에 모두 38기가 있는 셈이다. 다음 장수왕 15년(427년)부터 241년간 고구려의 후반기 수도였던 평양일대에 안악지역 14기를 포함한 82기가 발견되었다.

### 5-3. 천문관측의 중심, 고구려식 북극삼성(北極三星) 별자리

- ▶ 씨름무덤/춤무덤 속의 북극3성 별자리
- ▶ 진파리4호분 금박천문도 속의 북극3성 별자리
- ▶ 고려 벽화 천문도에 계승된 고구려의 북극3성 별자리

### 5-4. 천문의 나라, 고구려의 사방위 천문체계

- ▶ 고구려 사신도(四神圖)와 사숙도(四宿圖) : 사방위 신수와 사방위 별자리
- ▶ 오신도(五神圖)와 오숙도(五宿圖) 천문체계 : 우주의 중심과 천하의 중심

표지체계 방위	① 사신도	② 일월상	③ 4방위 별자리
동	靑龍	日象	東心房六星 (전갈자리)
서	白虎	月象	西參伐六星 (오리온자리)
남	朱雀		南斗六星 (궁수자리)
북	玄武		北斗七星 (큰곰자리)
중	黃龍		北極三星 (작은곰자리)

표 4 고구려 고분벽화의 3중 천문 표지 체계

### 5-5. 고구려의 천하관과 황룡 우주론

- ▶ 모두루묘지명의 천하사방과 추모성왕
- ▶ 사신도벽화와 오신도벽화 : 2신도 → 4신도 → 5신도
- ▶ 평원왕 강서대묘의 천정황룡벽화
- ▶ 집안 오회분 4호묘의 북극3성 별자리와 황룡도

### 5-6. 고구려의 동서남북 별자리, 사숙도(四宿圖) 이야기

현대인에게 방위와 시간은 생활의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고대인들에게 방위는 자신의 공간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주요한 지표였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위에 우주론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상징 체계가 상당히 발달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쉽게 만나는 사방위 상징으로는 통일신라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사찰의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앞마당을 들어서기 전에 만나는 사천왕상 체계가 있다. 동방의 지국천왕(持國天王), 남방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서방의 광목천왕(廣目天王), 북방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이라 불리는 이 네 하늘의 왕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는 불교

식 사방위 수호신이다. 고구려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널리 확산되었던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의 사신도 상징은 사방위 우주론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리학적 혈연주의가 발달한 조선에서 자기 가문의 영예를 앞세우는 배타적 조상 숭배 의식이 풍수지리적 발복 풍수 문화로 나타나면서 사신도적 방위사상이 매우 팽배하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매우 낯설지만 고구려인들이 구축하였던 중요한 사방위 상징으로 사속도(四宿圖)라고 일컫는 네 방위 별자리 체계가 있다.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자리 중에서 고구려의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고유한 수호성이 있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인데,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된 그림 속에서 쉽게 확인된다. 천정의 북쪽 하늘에는 북두칠성 별자리를, 남쪽 하늘에는 남두육성 별자리를, 동쪽 하늘에는 東入六星(東双三星, 心房六星) 별자리를, 서쪽 하늘에는 西入六星(西双三星, 參伐六星) 별자리를 새겼던 것이다.

일단 이들 사속도 별자리는 별자리 모양에서 남북과 동서가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진다. 곧 북쪽의 북두칠성과 남쪽의 남두육성은 둘다 동일한 국자 모습을 취하였다. 동쪽의 심방육성은 들 입(入)자 모양의 여섯 개 별로 구성되었고 서쪽의 삼별육성은 사람 인(人)자 모양의 여섯 개 별로 이루어졌다. 고구려인들이 왜 이들 별자리를 방위 수호성으로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밤하늘의 지속적인 관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입육성은 현대 서양식 별자리로 말하자면 봄철 밤하늘에 웅장하게 떠오르는 전갈자리의 일부(집게와 머리)이며, 동양식 별자리로서는 청룡 별자리의 일부(심장과 몸통)인 심수 3성과 방수 3성이 결합된 모양이다. 서인육성은 가을철 밤하늘에 높이 솟구쳐 장관을 이루는 오리온 별자리에 해당하며, 동양식으로는 백호 별자리의 호랑이 머리에 위치한 삼수 3성과 별성 3성에 해당한다. 곧 오리온 별자리를 동양에서는 호랑이 머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봄철의 전갈자리와 가을철의 오리온자리는 천구상 적경 위치가 180도 반대편에 자리한 까닭에 하나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가 서쪽 하늘 아래로 사라지는, 마치 거대한 하늘의 시이소오 놀이를 하는 관계를 가진다. 고구려인들은 바로 서로 대칭되는 이 두 별자리를 각기 동쪽과 서쪽의 방위 수호성으로 응립하였던 것이다.

북쪽의 북두칠성은 그 밝기와 크기가 너무나 뚜렷하고 늘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관찰되기 때문에 단연 북쪽을 지키는 방위 별자리가 되었다. 이에 대칭되는 남두육성은 고구려인들에게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액운을 극복케하며 복록을 담당하는 매우 상서로운 별자리였다. 이 별자리는 여름철 남쪽 밤하늘 은하수에 반쯤 잠긴 국자 모양으로 관측되는데, 서양식으로는 반인반마 형상을 한 궁수자리의 일부이며, 동양식으로는 현무 별자리의 거북 머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구려인들은 밤하늘의 별자리에서도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지키는 고유한 사속도 별자리가 있다는 매우 대담한 생각을 펼쳤다. 별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세계를 든든하게 밝혀줄 사방위 수호성을 엮었던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생각의 흐름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보이지 않게 되어 현재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말았다. (이상, 김일권, 『한국인의 하늘과 고구려 별자리 문화』, 『한국학첫걸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수록)

## 6. 하늘의 상실과 복원

### 6-1. 고려와 조선의 두 하늘과 하늘 인식의 변화

#### ▽ 천문의 하늘과 이법의 하늘

- ▶ 고려조 다종교의 다원적 하늘 : 천문과 비천문, 도선과 불교의 하늘, 유교의 제천
- ▶ 조선조 성리학의 이법적 하늘 : 태극론, 태극도설, 象數學, 칠성신앙

#### ▽ 하늘의 상실과 복원

- ▶ 조선조 제천의례의 혁파와 하늘의 봉쇄 : 소중화의 세계성과 이념성
- ▶ 비선과 신화, 판타지와 천공의 하늘(고구려)
- ▶ 무상한 다원의 하늘(고려)과 이념의 하늘(조선)
- ▶ 국가천문과 민간천문의 분리 : 觀象監, 『七政算내외편』 / 칠성각과 칠성신앙

#### ▽ 고구려 천문의 계승 관계

- ▶ 일본 기토라고분 천문도 : 700년경 / 사규(四規) 전천(全天) 천문도
- ▶ 고려 능묘 천문도 (17기)
- ▶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 태조 4년(1395)

### 6-2. 고려 천문도에 계승된 고구려식 북극삼성 별자리

중국류 천문도에서 발견되지 않는 고구려만의 별자리로 천체 회전축에 놓인 하늘의 중심 별자리 북극삼성이 고려의 벽화에서도 다시 출현하고 있다. 북극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축의 끝을 천구로 한없이 연장하여 간 지점에 위치한 별로서, 모든 천체들이 이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전통 천문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런 사실을 두고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군주가 덕으로 정치하는 것을 일러 비유컨대 북진성이 그 자리에 있어 못별을 아우르는 것과 같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천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시대의 유물자료에서 또다시 북극삼성 별자리를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20대 신종의 양릉(1204년) 천문도에는 바깥 원주에 동양 별자리의 표준인 28수 별자리를 붉은 색으로 그렸고, 그 안쪽 중심부에 고구려식 북극삼성과 북두칠성을 역시 붉은 색 별자리로 묘사하였다. 고려말 파주 서곡리 벽화묘(1352년)의 천정석에는 흰색 원으로 천구를 표시한 가운데로 역시 북극삼성 별자리와 북두칠성을 커다랗게 묘사하였다. 12세기초 안동 서삼동 고려 벽화묘(12세기초)에서도 붉은 색 28수 별자리를 원주로 둘러싼 중심부에 더큰 붉은 원반으로 해와 달을 표시한 사이에 고구려식 북극삼성과 북두칠성 별자리를 그렸다.



한당의 중국류 천문도와 다른 독자적인 천문전통을 일구어나간 고구려 천문학의 고심이 반영된 대목이면서, 고구려와 고려의 천문학적 계승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를 통하여 고려가 고구려를 이었다는 역사적인 계승 측면이 더욱 공고해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벽화 천문의 전승이 고구려에서 고려로 1000년이 지나도록 이처럼 줄기차게 바뀌지 않은 점이 더욱 놀랍기도 하다. 중국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정체성이 천문의 문화성과 계승성으로 여실하게 작동된 결과일 터이다.

이처럼 고려는 고구려식 천문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유물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인이 남긴 천문 문화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200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천문의 해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전천석 각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라는 조선 초기의 걸출한 작품과 더불어 고구려와 고려의 천문 전통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 고대의 천문 문화가 더욱 빛날 것이라 전망한다.

## 7. 한국 고대인의 천상풍류와 하늘 지향성 문화

우리 문화에서 하늘은 서양 문화에서 신이 가지는 위치에 비견된다. 이 세상 만유를 창조한 위대한 존재로서 신에 대한 탐구와 신에게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려 하였던 유럽 중세 신학은 서양 문화의 지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에 반해 동양 문화에서 신이란 천신과 지신, 조상신처럼 애초부터 복수적인 의미로 출발하였던 까닭에 유일자로서의 신이란 관점이 성립되지 않았고, 대신에 무한한 허공의 하늘 자체를 지고한 존재자로서 신격화시킨 하늘 신학 곧 천학이 널리 발달하였다. 이 하늘 지향성으로 말미암아 광대무변한 하늘의 주재자가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그런 하늘이야말로 인간이 궁극으로 귀착하여야 할 존재의 근원이라는 천인합일적인 사유가 우리 문화 곳곳에서 발달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유물자료로 확인되는 최초의 하늘신 이름은 광개토태왕비에 새겨진 황천상제였으며, 고려사의 술한 기록에서도 성스러운 하늘의 임금이란 뜻의 황천상제와 천황대제, 넓은 하늘의 주재자란 뜻을 지닌 호천상제 등이 시기에 따라 잇따라 등장하였다. 하늘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 지고신의 성격과 이름이 다르게 붙여진 것인데, 한 때는 밤하늘 별자리의 제왕인 북극성이 유일한 최고의 천제라는 뜻에서 태일신이라 불리워 숭신되었다.

이처럼 하늘을 향한 믿음이 강렬하였기에 하늘 제사 곧 제천의 역사 또한 필연적으로 발달하였다. 부여의 영고제천, 고구려의 동맹제천은 지고한 하늘에 대한 제사이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는 국중대회였기에 년중 행사 중 가장 성대한 잔치인 신년축전으로서 치러졌다. 고구려 벽화에서 천공을 달리며 노니는 비선상(飛仙像)이 매우 많이 그려진 것도 하늘을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상정한 사유의 결과물이다. 거문고를 켜고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부는 선인들이 때로는 봉황과 백학을 타고 해와 달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천공이 놀이터인마냥 북두칠성 별자리에 걸터앉아 합주를 하는 모습은 한국 고대인들이 천상풍류의

이상향을 추구한 걸작들이다.

하늘에서 울리는 음악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는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 낸다. 해가 가장 짧은 동짓달에 울리는 리듬은 황종울이라 일컬었고, 12월의 소리는 대려울, 1월엔 태주울, ... 9월엔 무역울, 10월엔 응종울의 리듬이 울린다고 보았다. 이렇게 열두달을 순환하면서 다르게 발생하는 소리의 리듬인 까닭에 이들 12울러 체계는 곧바로 1년 12월을 구분짓는 시간의 리듬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시대 달력의 시간학을 지칭하는 용어인 율력(律曆)이란 말은 소리(율)와 시간(력)의 근원이 같다고 본 인식의 반영이다.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여섯 줄 거문고, 일곱 구멍 피리, 열두 줄 가야금 등은 별들의 조화에서 나오는 하늘의 신비한 소리를 담아내는 악기들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천공에 건설한 이상처럼 하늘이 아주 낮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고 인간 속에서 하늘의 모습을 찾던 한국 고대인의 하늘 지향성 문화는 스스로 제후국을 자처하여 국가공식의 제천의례를 혁파한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점차 쇠퇴한 끝에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 높아서 다가설 수 없는 멀어진 하늘이 되고 말았다. 다시금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천공에 노니는 무한한 사유의 하늘을 펼쳐본다면 분별로 건조해진 현대인의 심성 저변에 화락(和樂)을 연주하는 하늘의 조화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 일 권** (namdukim@hanmail.net /010-3548-0811)

**\* 참고도서**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10)

-----,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예문서원, 2007.10) :2008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고즈윈, 2008.9) :2008년 KBS 책문화대상 빛나는 역작대상후보 선정 / 2009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12) :2009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선정 / 2010년 한국일보 제50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저작상 수상

-----, 『고려사의 자연학과 여행지 역주』(한중연출판부, 2011.1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12.5.4)

-----, 『국역고려사 권14 지2 曆志 역주』(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1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12.5.4, 국역고려사)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국가석학 2011년 우수학자 선정